

말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시편 1:1-6)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한 사람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이런 사람과의 사귀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또 사귀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와 친구 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첫째 비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과 또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냇가의 나무와 같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순간의 이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좋게 보일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바람 따라 다니다가 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2021년 추석 명절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대표기도 가족 중 한분

성경읽기 시편 1:1-6 가족 중 한분

-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2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나눔 복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인 도 자

주기도문 다 같 이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1) 가족이 한 상에 함께 둘러 앉아 예배합니다.
 - 2) 예배 순서지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3) 가족들이 성경읽기나 대표기도순서를 나누어 맡아 진행합니다.
 - 4) 대표기도나 설교가 어려우시면 예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도록 권면하시되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예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다음과 같은 일은 삼가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께만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 1) 향이나 초는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 2) 선조를 위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 3) 선조들의 명복을 비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